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0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위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7.17~2025.07.23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주민투표, 장관, 소비쿠폰(탐나는전), 요금, 읍면
경제·관광	관광객, 동물복지, 홍보, 서비스, 농가
지역·사회	병원, 대응, 관광객, 평가, 연구

※ 분석 기간 : 25.07.17.~25.07.23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주민투표	- 행정구역 쟁점이 주민투표의 최대 관건 - 주민투표 시기 불투명 및 절차적 쟁점 - 시민사회,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장관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제주 현안 입장 표명 -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 속 사퇴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소비쿠폰 (탐나는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방법 - '지류형 탐나는전' 수령 시 문제점 발생 - 소비쿠폰 지급 첫 이틀간 1428만 명 신청
	요금	-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요금 30년 만에 대폭 인상 - 렌터카 '바가지요금'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
	읍면	- 읍면 청년 유출, '생활 편의시설 부족'이 주원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동체 자원화 - 읍면 지역 안전 인프라 취약성 드러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 과제 부각 - 내국인 관광객, 7월 들어 회복세 - 中 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 우려
	동물복지	- 제주 양돈농가, 동물복지 인증 전무 - 2030년 모든 군사사육 의무화 과제 - 커피박 재활용, 친환경 축사 조성
	홍보	- 수도권 겨냥, 제주여행 대대적 홍보 - 포켓몬 IP 활용, 대규모 관광 이벤트 - 세븐틴 승관, 제주관광 홍보대사 활동
	서비스	- 택시 서비스 향상 위한 칭찬 캠페인 -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 서비스 강화 - 드론 활용, 섬지역 배송·관광 서비스
	농가	- 시니어 영농닥터, 농가 돕기 나서 - 노지감귤 발매기 가격, 전년비 상승 - 대규모 농사, '규모의 경제' 효과 입증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병원	- 제주대병원, 폐렴 평가 6회 연속 1등급 - 제주대병원, 지역의료 연구 중추 역할 담당 - 소방헬기, 폐렴유증 환자 긴급 이송 성공
	대응	- 경찰과 소방, 재난·범죄 공동 대응 강화 - 폭염 심화, 온열질환자 급증에 총력 대응 -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비상 대응
	관광객	- 자치경찰, 관광객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 폭염 속 '양산 쓴 남자' 새로운 풍경 - 제주 해변, 시민들의 활약으로 잇따른 구조
	평가	- 제주대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 제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가칭)제주미래산업고, 특성화 학과 논의
	연구	- 제주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추진 - 제주대 연구팀, 위암 전구병변 증거 제시 -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품질 향상 연구 착수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7월 17일~7월 23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96건임
 - 정치·행정 분야 330건, 경제·관광 219건, 지역·사회 34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주민투표, 장관, 소비쿠폰(탐나는전), 요금, 읍면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주민투표	- 행정구역 쟁점이 주민투표의 최대 관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요구함. 제주도가 추진하는 '3개 기초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안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2개 기초시(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대립하는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제주도에 최종 입장 정리를 요구하며 이 문제가 주민투표 시행의 핵심 선결 과제로 부상함 · 제주도와 위성군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3개 기초시' 안이 도민 전체의 의사라는 점을 강조함. 반면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 분
-------	------	--

정치·행정	주민투표	할에 대한 준비 부족과 도민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2개 기초시' 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힘.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 조속한 대승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주민투표 시기 불투명 및 절차적 쟁점 · 제주도는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을 위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설정함.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당초 목표했던 8월 실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따라 주민투표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윤호중 장관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 제정 시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 단축이 가능함을 시사함. 또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율과 관계없이 개표가 가능해졌으나, 낮은 투표율은 결과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주도는 투표율 제고 방안을 고심 중임 - 시민사회,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기초단체 설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함. 이들은 단층제 행정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행정체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함 ·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5개월간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마련했음을 강조함.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10여 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2026년 7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함
	장관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제주 현안 입장 표명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힘. '2개시' 또는 '3개시' 안 중 하나로 도민 의견이 모아져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며,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선결 과제로 주문함 · 윤 장관은 제주4·3 왜곡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임. 또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상향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나타냄 -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 속 사퇴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끝에 23일 자진 사퇴함. 장관 내정 한 달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임. 야권은 물론 일부 친여 성향 단체까지 사퇴를 압박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강 후보자는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대통령과 당에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퇴의 변을 밝힘.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강행할 기류였으나, 여론 악화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결국 강 후보자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정치·행정	장관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로써 국가폭력 피해 치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해짐 · 그동안 정부가 운영비와 사업비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시켜 국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운영비는 전액 국비,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됨. 또한 기존 '분원' 개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위상이 격상되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 운영의 기틀이 마련됨
	소비쿠폰(탐나는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방법 · 7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됨. 비수도권 3만원 추가 혜택으로 제주도민은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지원받음. 신청은 9월 12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나 탐나는전 앱,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됨 ·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처에서 제외됨. 오영훈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도민이 빠짐없이 쿠폰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탐나는전 이용 시 추첨을 통한 포인트 지급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힘 - '지류형 탐나는전' 수령 시 문제점 발생 ·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일부 주민센터에서 지류형 탐나는전 물량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제주도가 긴급하게 추가 물량을 배부함. 지류형은 유효기간이 길고 타인에게 양도가 쉬워 고령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준비된 수량이 적어 혼선이 발생함 · 지류형 탐나는전은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인 11월 30일이 아닌 발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사용이 제한된 하나로마트에서도 결제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이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는 하나로마트에 지류형 상품권의 자발적 사용 자제를 요청함 - 소비쿠폰 지급 첫 이틀간 1428만 명 신청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인 22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1428만 6천 명이 신청해 신청률 28.2%를 기록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2조 5860억 원에 달함. 이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정부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지역별 신청률 편차가 나타났는데, 인천이 30.02%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는 26.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임. 제주에서는 총 17만 4263명이 신청했으며, 신용·체크카드(11만 3501명)를 통한 신청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6만 762명)보다 많았음
	요금	-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요금 30년 만에 대폭 인상 ·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주차장, 야영장 등 시설 사용료를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차요금은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되며, 장시간 탐방객의 경우 요금이 최대 13배까지 오를 수 있어 이용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치·행정	요금	· 승용차 기준, 종일 주차 시 현행 1800원에서 최대 1만 3000원으로 인상되며, 65세 이상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됨. 제주도는 1100도로 일대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타 국립공원과의 형평성을 인상 이유로 설명했으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불법 주정차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됨 - 렌터카 '바가지요금'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제주도가 성수기와 비수기 간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는 렌터카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을 상한선' 도입을 검토 중임. 이는 업체의 과도한 비수기 할인을 제한해 성수기 요금 급등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 하한제와 유사한 효과를 냄 ·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우려로 요금 하한제에 제동을 건 바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함. 제주도는 '도서정가제'를 선례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며, 회계자료 기반의 객관적인 요금 신고 의무화 등 관련 규칙을 9월까지 개정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임 -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 · 8월 1일부터 제주도 내 만 13~18세 청소년은 모든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사례임. 기존 중·고교생 등하교 시간대 교통비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교통복지로 정책이 확대됨 ·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 탑승 범위도 기존 시내버스에서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확대됨. 이번 정책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육복지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을 목표로 함
	읍면	- 읍면 청년 유출, '생활 편의시설 부족'이 주원인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읍면 지역 거주민의 60.3%가 젊은 층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30.9%)보다 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39.7%)을 읍면 지역을 떠나는 더 큰 이유로 꼽아, 생활 인프라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줌 · 이는 읍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역 공동체 결속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연구진은 청년들이 출퇴근의 어려움보다 거주지 주변의 생활 편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청년 대상 정책 데이터 확보 등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동체 자원화 · 읍면 지역 선주민의 76.3%가 이주민을 동일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89.7%에 달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이주민을 공동체 활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기반이 됨 ·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이주민 활용 전략 마련을 정책 과제로 제안함. 다만, 일부 응답자는 이주민이 '지역 문화 이해 부족', '마을 참여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답해,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됨 - 읍면 지역 안전 인프라 취약성 드러나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분석 결과,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가로등,

경제·관광	관광객	- 내국인 관광객, 7월 들어 회복세 · 2025년 상반기 내내 감소하던 내국인 관광객이 7월 들어 0.1% 증가세로 전환되며 하락세를 멈춤. 이는 여름 휴가철 특수와 항공·숙박·렌터카 업계의 할인 경쟁, 해변 축제 및 야간 관광 콘텐츠 등 계절형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2025년 7월 18일 기준, 누적 관광객 수는 702만 명을 돌파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수요가 동반 상승하며 하반기 제주 관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中 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 우려 · 현재 제주에만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3분기 중 전국으로 한시적 확대될 예정임. 이에 따라 제주만의 관광객 유치 강점이 사라져 서울, 부산 등 다른 도시로 중국인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무비자 정책 확대로 전체 방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커져 제주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불법 체류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치안 부담에 대한 우려도 공존함. 제주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동물복지	- 제주 양돈농가, 동물복지 인증 전무 · 전국적으로 451곳의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있으나, 제주의 257개 양돈농가 중 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임. 이는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공장까지 전 과정에서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임 · 동물복지 인증 돼지고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유통 채널 및 소비자 확보가 어려운 점도 농가들의 참여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30년 모든 군사사육 의무화 과제 · 2030년부터 기존 양돈 농가에 대해 어미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두는 스톨 사육이 금지되고,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군사 사육이 의무화될 예정임. 현재 제주의 모든 양돈장은 스톨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임 · 군사사육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소요되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이는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제주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정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커피박 재활용, 친환경 축사 조성 · 제주 향토기업 제주우유와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사회적협동조합이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활용해 친환경 축사 환경을 조성하는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함. 협약에 따라 카페에서 수거된 커피박을 목장에 공급해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함 · 커피박은 수분 흡수와 탈취 효과가 뛰어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물복지 증진과 함께 지역 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됨
	홍보	- 수도권 겨냥, 제주여행 대대적 홍보 ·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침. 서울 역, 홍대입구역 등 74개 지하철역 디지털 미디어 346면에 '가깝고 안전한 제주여행'을 주제로 한 홍보 포스터를 집중적으로 게시함 · 단체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정책과 제주관광 공식 포털 '비짓 제주'를 통한 테마형 콘텐츠를 함께 홍보하며 관광 수요 확대를 꾀하고 있음.

경제·관광	홍보	또한, 해수욕장 요금 통일 등 합리적 가격의 여행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음 - 포켓몬 IP 활용, 대규모 관광 이벤트 · 오는 10월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가 개최될 예정임. 이 행사는 제주국제공항 포토존, 'Pokémon GO' 스탬프 릴리, 국내 최초 '포켓몬 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포켓몬 캐릭터를 통해 중문관광단지와 제주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내수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주관광공사, 포켓몬코리아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준비 중임 - 세븐틴 승관, 제주관광 홍보대사 활동 · 제주도 홍보대사인 그룹 세븐틴의 승관이 '제주와의 약속' 관광 캠페인 광고 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함. 제주 출신인 승관은 평소에도 고향 사랑을 실천하며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음 · 광고는 '보전, 공존, 존중'을 핵심 키워드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국 방송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임. 이번 캠페인은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음
	서비스	- 택시 서비스 향상 위한 칭찬 캠페인 ·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JJT 모빌리티가 협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 향상과 운수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친절·안전 택시 드라이버 칭찬 캠페인'을 시행함. 도내 택시 2300대가 참여하며, 승객들은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음 · 설문은 차량 청결도, 기사 친절도, 안전 운행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며, 참여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우수 기사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해 긍정적 상호작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 서비스 강화 ·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함 · 제주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협력해 '탐나는전 체크카드' 사용자를 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함. Npay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시 캐시백 외에 추가 Npay 포인트 적립, 신규 발급 시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쿠폰 사용 편의성과 혜택을 높임 - 드론 활용, 섬지역 배송·관광 서비스 · 제주도가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본격 운영하며 부속섬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함. 배송 중량과 크기를 확장하고,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하여 제주산 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함 · 8월부터는 드론배송센터에서 탑승형 드론 관광 체험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함. 참가자가 VR 기기를 통해 드론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며 드론의 움직임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실감 나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농가	- 시니어 영농닥터, 농가 돕기 나서 · 농업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를 '시니어 영농닥터'로 양성해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됨.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총 70명이 선

경제·관광	농가	발되었으며, 이 중 20명이 5개월간 제주 농가를 방문해 활동할 예정임 · 영농닥터는 영농일지 작성 지원, 농업 현장 Q&A 등록, '농업ON' 서비스 활용 교육 및 홍보 등 디지털 농업 환경 적응을 위한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이를 통해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지감귤 발매기 가격, 전년비 상승 · 2025년산 노지감귤의 포전매매(발매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서귀포시의 경우 3.75kg당 평균 4000~4500원, 일부는 5000원까지 거래되어 작년 대비 최대 1000원가량 상승함 ·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량 감소 전망과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과, 배 등 경쟁 과일의 가격 강세가 꼽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귤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대규모 농사, ‘규모의 경제’ 효과 입증 ·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조사 결과, 월동무 등 주요 작물에서 농사 규모가 클수록 클수록 단위면적당 경영비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월동무의 경우 3ha 이상 대규모 농가의 10a당 평균 경영비는 1ha 미만 소규모 농가보다 약 28% 낮았음 · 이는 기계화와 작업 단일화에 따른 비용 효율성 향상 때문으로 분석되며, 대규모 농가에 특화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함. 또한 지역별, 해발고도별 경영 특성 차이가 커 맞춤형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병원, 대응, 관광객, 평가, 연구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병원	- 제주대병원, 폐렴 평가 6회 연속 1등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제주대학교 병원이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최상위 수준의 의료 역량을 입증함. 이번 평가는 전국 5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폐렴 진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제주대병원은 산소포화도 검사,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100%를 달성함. 종합점수 98.7점으로 전체 병원 평균인 82.9점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폐렴 진료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킴 - 제주대병원, 지역의료 연구 중추 역할 담당 ·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85억 원과 도비 15억 원을 확보함. 이를 통해 아열대 감염병 대응 기술, 뇌졸중 유전체 데이터 구축 등 제주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신설되는 '연구협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함. 첨단 연구 장비 도입과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도민 질환 특성에 기반한 연구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소방헬기, 폐섬유증 환자 긴급 이송 성공 · 제주119항공대가 폐 이식 수술이 시급한 폐섬유증 환자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수도권 병원까지 성공적으로 이송함. 폐섬유증은 폐가 굳어지는 질환으로 폐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며, 환자는 제주 내 치료가 어려운 위급한 상태였음 · 당일 기상 악화로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서울에서 충청, 호남권으로 이어지는 총 450km의 우회 항로를 개척해 임무를 완수함. 환자는 무사히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환자 가족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하늘길을 열어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함
	대응	- 경찰과 소방, 재난·범죄 공동 대응 강화 · 제주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복잡·다양해지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반기별 정례협의회 개최, 공동주택 자동출입시스템 공동 구축·운영, 합동 훈련 실시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긴급신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의 수사 역량과 경찰의 응급처치 능력을 상호 향상시켜 '안전한 제주'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 폭염 심화, 온열질환자 급증에 총력 대응 ·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 올해 5월 15일부터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33명으

	대응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27%) 증가한 수치를 보임. 특히 과수원, 밭 등 야외 작업 중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이에 제주도는 폭염에 취약한 지역에 물안개 분사장치 등을 갖춘 야외쉼터 5곳을 추가 조성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150곳을 방문해 폭염대응용품을 전달하는 등 안전망 확충에 나섬. 소방당국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대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함 -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비상 대응 · 지난 주말, 제주 전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함.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앞 도로와 연삼로 등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맨홀 뚜껑이 열리는 등 18일 하루에만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됨 · 이에 제주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에 나섬. 오영훈 지사는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급경사지 및 공사장 점검 강화와 하천변 출입 통제 등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시함
지역·사회	관광객	- 자치경찰, 관광객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 등에서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최근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여성 관광객 구조, 길 잃은 치매 노인 보호자 인계 등 다양한 사례에서 활약함 · 또한, 택시 관광 중 여권과 현금을 분실한 미얀마 국적 크루즈 선원을 돕고, 연락이 두절된 중국인 가족 관광객을 찾아주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어려움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자치경찰은 번역 앱을 활용하는 등 세심한 대응으로 안전한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폭염 속 '양산 쓴 남자' 새로운 풍경 ·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여름 풍경을 만들고 있음. 이는 '양산은 여성용'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양산은 체감온도를 최대 1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어 '생존 필수템'으로 자리 잡음.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남성의 '우양산' 검색량은 전년 대비 90% 급증했으며, 잡화점에서도 남성 고객의 양산 구매가 크게 늘어남. 제주시는 양산대여소 44곳을 운영하며 무더위 대응을 지원함 - 제주 해변, 시민들의 활약으로 잇따른 구조 · 서귀포 쇠소깍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3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주변에 있던 수상안전요원과 관광객들이 신속하게 구조함. 시민들은 소방대 도착 전 구명환을 던지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함 · 같은 날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도 낙상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 관광객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함. 소방당국은 시민들의 용감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유공 시민 표창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지역·사회	평가	- 제주대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 제주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함.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심평원은 2014년부터 진료 적정성을 평가해오고 있음 · 평가는 산소포화도 검사,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 항생제 투여율 등 5개 지표로 이루어짐. 제주대병원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100%를 충족했으며, 종합점수 98.7점으로 전국 평균(82.9점)을 크게 웃돌며 최상위 수준의 진료 역량을 입증함 - 제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제주도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토목·건축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실시함. 이번 조사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 15년 이상 된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안전진단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안전상태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 (가칭)제주미래산업고, 특성화 학과 논의 · 2027년 개교 예정인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의 학과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됨. 연구는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함 · 연구진은 지역 인재 수요와 학생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조리, 스마트농업, 디지털콘텐츠, IoT디자인, 데이터사이언스 등의 학과를 유망 분야로 제시함. 보고회에서는 학과 분야의 균형, 지역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학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연구	- 제주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85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 이를 바탕으로 제주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허브로 도약할 계획임 · 주요 연구 분야는 △아열대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지역 기반 뇌졸중 유전체 데이터 구축 △희귀 유전질환 정밀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등임. 또한 '연구협력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첨단 장비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산·학·연·병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 제주대 연구팀, 위암 전구병변 증거 제시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직접적인 전구병변임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함. 위염이 만성화되어 발생하는 장상피화생은 기존 역학 연구에서도 위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자 수준에서 직접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연구팀은 공간 전사체 분석, 단일세포 분석,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실험 등

지역·사회	연구	최첨단 연구 기법을 활용함. 그 결과, 불완전형 장상피화생 세포가 위암 조직과 유사한 유전자 프로파일을 가지며, 외부 자극에 따라 불안정한 분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위암 조기 진단의 새로운 길을 열었음 -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품질 향상 연구 착수 ·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골드키위 신품종인 '감황(상표명: 하트골드)'의 품질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배기술 연구에 돌입함. 최근 재배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균형 잡힌 재배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실정임 · 이번 연구는 3년간 진행되며, 적정 착과량 조절과 토양 수분 관리가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춤. 연구를 통해 품질과 수량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재배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